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2호 [루계 제25701호] 주체106(2017)년 7월 1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연회 성대히 진행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온 나라를 승리자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7월 10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연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목란관연회장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공헌한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유산인 백두산대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려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축하하시였다.

참가자들은 반만년민족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장쾌한 대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과들을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시며 대해같은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황병서동지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에 공헌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위하여 전례없는 평양초청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오늘은 성대한 축하연회에 초대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전략무기체계를 완성하여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옹위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7월 4일의 대사변소식에 접하여 만세, 만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끝없는 기쁨과 격정으로 들끓고있다고 하면서 평양시민들은 물론 온 나라의 일터와 초소, 마을과 가정들에서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대경사를 경축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리의 시험발사성공을 인정하면서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있으며 세계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대사변으로 평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렇듯 거대한 력사적변천과 전인민적대경사를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라고 하면서 고금동서를 아무리 돌려보아도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강국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한 정력으로 세월을 주름잡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천재적인 전략가, 탁월한 령도자, 헌신적인 애국자는 찾아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장장 70여년세월 우리 민족을 위협해온 미제의 핵공갈과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압박책동을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미국의 심장부를 겨눈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어이 완성하여 최후승리의 직선침로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전략적결심을 내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과 군대, 국가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화성-14》형개발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 정치위원이 되시여 개발전과정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신데 대하여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기발한 과학적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면서 대륙간탄도로케트완성의 험로역경을 한치한치 앞장에서 헤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혁명세계, 뜨거운 열과 정의 날과 달들은 다 헤아릴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화성-14》형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완성의 나날은 세계가 알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개발창조된 과정인 동시에 당중앙이 요구하는 그 어떤 첨단무기체계도 최단기간내에 완벽하게 개발할수 있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조선로동당의 최정예과학연구집단, 충정의 전투대오가 탄생한 과정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승리의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돌려주시고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국방과학전사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방과학전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면서 그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심장속깊이 새기고 당의 주체적핵무력건설위업을 더 높은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식의 전략무기체계의 련속적인 개발과 질량적강화로 주체조선의 핵병기창을 줄기차게 다져나감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앞에 흰기를 들고 항복서를 바칠 때까지 숨돌릴새 없는 강타를 안기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있었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받드시고 주체적전략무기발전의 정수로 되는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전승의 7월을 영원한 승리의 7월로 더욱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전진가를 기세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강대한 우리 조국의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공연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연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공화국의 존엄이 실린 주체탄의 줄기찬 뢰성으로 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하며 자주의 길, 혁명의 길, 결사전의 길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걸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는 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지금 커다란 기쁨과 환희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조국땅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고있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방해책동과 도전속에서도 비범하고 특출한 령도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시여 민족의 숙원을 가슴후련히 풀어주신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빛나게 실현하고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무한한 민족적자긍심을 안겨준 조국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된 주체조국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입니다.

지금 정의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아낌없는 찬탄과 지지를 보내고있으며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주체조선의 핵무력앞에 기절초풍하고있습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오늘의 대경사는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인 병진로선으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구현하시여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으심으로써 우리 조국을 세계의 그 어떤 대정치동란속에서도 끄떡없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떨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치렬한 반미핵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면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핵보유의 대업을 실현하시였으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붉은 기발을 더욱 세차게 휘날리시였습니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품에 지니시고 한생을 희생적인 애국헌신으로 수놓아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십니다.

이번에 또다시 통쾌하게 울린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 대성공의 뢰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과 포연짙은 화선들을 쉬임없이 찾고 또 찾으시며 천만로고를 다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빛나는 결실이며 온 겨레가 천년만년 길이길이 찬양해야 할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위업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탄도로케트도 척척 만들어내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찬연히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가장 충직한 전사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은 이역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다시한번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올립니다.

우리의 주체조국에서 온 세계를 들었다놓으며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터치는 장쾌한 로케트뢰성에 얼이 나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최대의 압박》이요 뭐요 하고 외마디비명을 지르고있으나 그것은 림종을 앞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병진의 기치높이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의지로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제일 앞장에서 받들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한 조국의 국방공업부문 전사들의 충정심을 따라배워 미제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거세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념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은 주체조선의 영원무궁한 미래와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체106(2017)년 7월 6일 중국 심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을 로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이다》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아르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6월 26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이의 청년운동사상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들을 혁명의 강위력한 전위대오,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창조된 력사에 류례없는 영웅청년신화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우신 훌륭한 청년대군이 있기에 조선은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백 두 산 천 출 위 인 들 의
로작연구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6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이슬란드, 나이제리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백두산천출위인들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언급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 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의 기본내용을 해설하고 김정일각하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또한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도이췰란드조선문화연구소조 책임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은 머지않아 통일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설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 주 로 빛 나 는 위 대 한 한 생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 최상의 경지에 도달,

날로 급상승하는 우리 조국의 비상한 자위적국방력에 대한 긍지로 우리는 절세의 애국자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력사를 뜨겁게 더듬어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다.

애국중의 가장 위대한 애국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된 자각이며 자기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애국, 음미해볼수록 조선혁명의 자주의 력사를 개척하시고 우리 혁명, 우리 민족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애국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생각하게 한다.

＊ ＊

시대의 발전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있다. 그에 따라 나라간의 력량관계, 전반적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있다.

그 어떤 사변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혁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만능의 지침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의 력사를 뼈에 새기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정치라고 확신성있게 주장한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그 나라 혁명의 기본임무이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이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２０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이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할 업적을 뜨겁게 추억하시는 기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자주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그것을 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고 구현해오신것은 인류사상사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로 빛나고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대가 없이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면 후퇴와 양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곧 죽음이다.

자주를 고수하고 빛내이는 투쟁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려는것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자주적신념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자주를 고수하시는 길은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길이였다.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되던 시기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우리 수령님의 결단은 참으로 위대하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던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배심있게 떠밀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이다.

한때 사회주의나라들이 거의다 쎄브에 들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시여, 혁명의 먼 앞날을 위하여 기구에 들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에서 큰 수력발전소를 하나 건설해놓고 자기 나라에서는 거기에 공업지구를 건설할수 없기때문에 우리에게 송전선을 놓여 전기를 끌어다 쓰라고 할 때였다.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저들에게 고분고분하게 하려는 속내가 깔린 《특혜》였다.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것으로 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격으로 당장 받아들일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였다.

그 먼곳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을 놓을바에는 그 돈으로 우리 나라에 만년대계의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건설하는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에도 단호히 거절하시였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 나라 사람들은 《민족주의》니, 《고립주의》니 하고 비방하면서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그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의 벽을 쾅쾅 울려준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라는데 대한 선언이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이겨 자주로선을 포기하고 쎄브에 들어갔더라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없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조국해방기념일에 즈음하여 한때 쎄브에 들었던 나라 사람들이 대표로 우리 나라에 왔었다. 열병식을 할 때 여러가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나가는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 일군들에게 저 무기들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것인가고 물었다.

１０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놀랐다. 남에게 의존하던탓에 큰 나라가 망하자 다같이 망하고만 나라 사람들이였던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자주로선을 지키였기에 저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였다고 하면서 못내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늘 말하는것이지만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가고있기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성있게 선언하시였다.

력사의 역풍이 사면팔방에서 불어치던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오늘도 자주의 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과감히 고무추동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두고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인듯이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내리우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발악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울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언이 적들을 기절초풍케 하고 기를 꺾어놓았다.

놀랄것 없다. 적들이 우리를 어쩔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일제의 １００만 관동군이 포위진을 치고 달려들었지만 우리는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지켜냈는데 지금이야 땅도 있고 당과 국가와 군대가 다 있는데 걱정할것이 없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끄떡없다.

세계정치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변이였다.

당시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자기의 글에서 어떤 사람들은 동유럽바람이 조만간에 북조선에도 들어올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를 자기 식으로 건설하여놓았다, 그러니 거기에는 다른 바람이 들어갈수 있는 틈이 없다라고 썼다.

남의 처방이 자기에게도 다 맞을수는 없다. 사회주의를 하던 일부 나라들의 붕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옷을 줴버리고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온갖 지배주의책동을 짓부시자면 자기의것이 아닌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럽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였을 때이다. 그 나라는 경치좋은 해변가도시를 관광지로 리용하여 관광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있었다. 그 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자랑하고싶어 그곳으로 수령님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그곳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였다. 물밀듯이 쓸어든 외국관광객들의 행동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지경이였기때문이였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오시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대통령에게 관광업을 하여 돈을 버는 대신에 몇배나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관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는데 대하여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였다.

자기의 정치적입각점이 없이 덮어놓고 남의것을 모방하고 남의 《처방》에 살면 그 나라는 서서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침해당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빼앗겼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실천에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남에 대한 의존은 절대금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기계공업이 발전했다는 우리 나라주재 어느 한 나라 대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였다. 그도그럴것이 가렬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전후복구건설을 끝낸지 얼마 안되는 우리 나라에서 현대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전기기관차를 생산한다는것이 도저히 불가능한것으로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기회에 그 대사는 아무래도 전기기관차를 만들기 힘들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기관차와 전기뻐스를 사다 쓸데 대하여 건의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멀리 흐른 뒤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을 회고하시면서 우리가 자체로 만들겠다고 하니 그 대사는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자기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결사적으로 달라붙어 전기기관차를 만들도록 하였다라고 하시였다.

부속품만 하여도 ３천여개 들어가는 고속도차단기를 비롯하여 고도의 정밀성과 견고성을 요구하는 １만 ４천여종에 무려 １８만개나 되는 부속품이 들어가야 하는 전기기관차.

참으로 헐치 않은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자양분으로 하여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３５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만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는 전기기관차의 고속도차단기를 만들어내였고 불과 １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의것보다 값싸면서도 １.５배나 더 능력을 내는 전기기관차를 기어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야말았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그 기적은 그 대사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그는 그길로 공장에 달려나왔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자주의 한길로만 달릴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인양 붉은기를 앞머리에 달고 거연히 서있는 전기기관차를 보는 순간 대사는 자기의 입빠른 망언을 후회하였다.

후날 그 대사는 슬그머니 자기 나라로 귀국하였다.

오래전 우리 나라에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의 일이다.

경제부문 일군들은 공장에 들여놓을 설비들중 일부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계약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처음 토론했을 때와는 달리 설비를 제때에 보내주지 않는것이였다.

구실은 설비생산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 １５년세월이 흘러서야 계약했던 설비가 다 들어왔다.

이 일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일군들에게 공연히 떡을 보지 못할 남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다가 고무풍선처럼 될수 있다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주의 원칙에서 한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에게 남기신 마지막당부는 과연 무엇이던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이였다.

경제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재생산을 높이자면 적들의 제재조치를 분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카터와 만나 회담을 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제재를 가하겠다느니 뭐니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제재를 받는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지 제재를 받지 않은적이 한번도 없다. 우리 나라에 미국도 제재를 가하였고 일본도 제재를 가하였으며 그밖의 나라들도 제재를 가하였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별일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하여 못살아갈줄 아는가. …

카터는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취소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제재조치를 취소시키겠으면 취소시키고 말겠으면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는 단호하시였다.

그날 밤이였다. 카터는 온밤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와 함께 서해갑문을 참관하러 가게 되어있는데 그전에 확답을 받아 수령님께 알려드리고싶어서였다.

카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강인담대한 자주신념을 알게 된 대통령은 북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말하려고 한다는 카터의 의사를 승인해주었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다. 서해갑문으로 가는 유람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카터는 전화내용을 상세히 말씀올리였다.

우리는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던것을 취소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다. 우리가 미국을 반대하는것은 당신들탓이지 우리탓이 아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자꾸 못살게 노는데 그런다고 하여 우리가 못살아갈줄 아는가.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 나라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고 못살게 놀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지켜나가야 할 자주의 길,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에게 남기신 마지막당부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꾸리시고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와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간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련전련승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신 우리 수령님.

다른 나라 당, 국가들과의 관계도 철두철미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시키시여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비상히 떨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천추만대 길이 빛날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로써 개척하시고 한평생 혁명실천에 구현해오시였으며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남기신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길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와 륭성번영이 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자주의 성새를 억척같이 쌓으시고 ０.００１mm의 탈선도 허용치 않으시는 자주정치로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자주정치를 최후승리의 생명선으로 중시하시고 자주의 불길로 이 땅을 용암처럼 달구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대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는 끝없이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성합성가죽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성합성가죽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가 10일에 진행되였다.

리호복 평안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리수용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5(2016)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을 찾으시여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는 합성가죽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공장로동계급에게 새로운 만리마의 나래를 달아준 불멸의 혁명실록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보고자는 지난 1년간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에서는 려명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합성가죽과 무직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으며 기본생산공정들에 대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을뿐아니라 질좋은 가방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공장을 나라의 믿음직한 경공업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귀중한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합성가죽의 다색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몽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울란바따르

몽 골 대 통 령

할 트 마 긴 바 뜨 툴 가 각 하

나는 당신이 몽골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7월 9일 평 양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줄기차게 비약하는 청춘탄전

개발 60돐을 맞는 송남청년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우리 나라의 첫 청년기업소 송남청년탄광!

지금으로부터 60년전 7월 11일, 우리 나라의 첫 청년탄광개발을 온 세상에 선포한 뜻깊은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남청년탄광의 전체 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어머니조국을 석탄증산으로 억세게 받들어가며 청춘탄전의 연혁사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은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최근 10년동안에만도 수백만t에 달하는 석탄을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였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탄광의 면모도 더욱 일신시키였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친어버이은정속에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맹장들로 성장한 청년탄부들이 올해 상반년 석탄생산 및 기본굴진과제를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불길을 활화산마냥 지펴올리고있다.

송남의 바통은 굳건하다

보람찬 투쟁으로 새날을 맞고 보낼 때마다 탄부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대형유화작품을 청년굴진공, 채탄공들이 [illegible]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

일찌기 송남청년탄광을 개발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신 어버이수령님, 그 높은 뜻을 받드시여 탄전개발자들을 뜨겁게 환송해주시고 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키는 연설도 하시며 친히 전투적구호까지 제시하여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송남의 청년탄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그 모습을 어찌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지나온 년대기마다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1년 남짓한 사이에 년산 수십만t능력의 탄밭을 마련하고 한개 굴진소대, 채탄중대에서만도 월 200m이상의 굴진실적과 1만 1 000여t의 석탄을 생산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 전세대들의 투쟁위훈도 모두에게 긍지높이 되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송남의 자랑찬 바통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대대손손 굳건히 이어가리라!

이런 애국충정의 맹세를 천백배로 다지며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행복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를 불타는 일편단심으로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도당위원회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힘있는 방조밑에 탄광당조직에서는 [illegible] 부모들의 넋과 [illegible] 이어받아 청춘탄전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기둥으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참신하게 진행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자체의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재보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면서 김진청년돌격대와 채탄중대들의 청년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의 하늘같은 믿음에 오직 실천과 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자각,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여도 당이 제시한 승리의 좌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안고 청년탄부들이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전진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이 [illegible] 때였다.

경사각이 수십°에 달하는 [illegible]구간에서 이들은 [illegible] 동발들을 련속 드리는것과 함께 버럭처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였다. 마지막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전투가 한창일때 갑자기 지압이 심하게 걸리기 시작하였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 새 세대 청년탄부인 한영철동무가 닥쳐드는 위험을 맞받아 한몸을 서슴없이 날리였다. 김진청년돌격대원들만이 아닌 탄광의 모든 탄부들이 소대의 동지들을 구원하고 값높은 삶을 빛내인 청년동맹원 한영철동무의 고결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에서 선배탄부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그의 뜻까지 합쳐 석탄증산전투에 더욱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송남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고 뜻깊은 올해의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10일이상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송남의 청년탄부들이 자그마한 성과를 거둘 때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조국과 시대앞에 내세워주시며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도록 하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정녕 대를 이어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기대와 크나큰 은정이 청년탄부들에게 정치적생명의 불사약, 비약창조의 근본원동력으로 되였기에 이들은 애국충정으로 빛나는 송남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가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비약의 활로는 오직 하나

송남의 청년탄부들에게는 전세대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하는 또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있다.

송남식동발나무림!

공업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송남의 전세대 탄부들은 불꽃튀는 석탄증산투쟁을 벌리는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무려 1 500여정보에 달하는 이깔나무림을 조성하여 동발나무를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선구자의 자랑찬 영예를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변의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하여 동발나무를 자급자족할수 있게 한 이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친히 《송남식동발나무림》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널리 일반화하도록 전국에 내세워주시였다.

오늘도 무성한 숲을 이루고 송남의 산발들을 뒤덮은 동발나무림은 새 세대 청년탄부들에게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심어주며 자력갱생의 한길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하기에 송남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강력만이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 떨쳐나 탐구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올해 상반년기간에만도 종전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창성이깔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 석탄증산에 필요한 동발나무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이들이다.

탄광에서는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 이어 지금까지 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활발히 운영하고있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으로 반드시 새로운 질적비약을 이룩하려는 새 세대 청년탄부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알수 있다.

탄광기술자들이 석탄생산공정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채탄장의 정밀이능력을 훨씬 높이며 방부제를 새로 도입하여 동발나무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의 앞장에 섰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공무직장과 전설직장의 기능공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률높은 산소발생기와 고압송풍기를 제작도입하고 세멘트생산공정과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5개년전략고지점령을 위한 주되는 목표를 석탄매장량이 보다 풍부한 심부지구를 타고앉는데로 정한 탄광에서는 뽐프, 배수관 등을 자체로 마련하며 주요갱들에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 전체 탄부들과 가족들까지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체의 힘으로 문화회관과 김진청년돌격대전몰, 유치원과 살림집들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고 영생탑을 더욱 정중히 건립하였으며 연혁소개실도 훌륭히 꾸리였다.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청춘탄전의 만리마기수들로 억세게 성장한 송남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빛나는 바통을 꿋꿋이 이어가며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해 계속 총매진, 총돌격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큰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자

래일이면 늦는다는 관점에서

신흥군에서

당의 뜻을 받들고 신흥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성천강의 제방을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도록 더 든든히 보수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장마철에 강수위가 높아져도 제방이 파괴되거나 물이 넘어나는것을 막을수 있다.

군일군들은 큰물피해를 막는것은 단순한 재해방지사업이 아니라 피땀흘려 마련한 우리 제도의 귀중한 모든것을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사업을 패기있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성천강기슭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위험개소들을 확정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가물피해막이전투를 진행하는것과 동시에 성천강제방을 더 든든히 보수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군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당의 사상관철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여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성천강의 여러곳에서 제방보수공사가 단계별로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중평리지역의 제방보수공사장에 충정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공사에 동원된 여러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철벽이 되여 영광의 땅을 지키려는 각오밑에 수십m의 구간에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이들은 2일동안에 수백m³의 성토를 하고 돌을 채운 나무방틀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제방주변의 농경지와 도로를 철저히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기린리지역의 수십m구간에서 제방보수공사가 전투적으로 진행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 공사에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와 관련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더기비가 계속 쏟아질 때를 내다보면서 여러 중소하천들의 제방을 보수하고 나무방틀을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분초를 다투어 전투를 벌리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강하천들의 제방이 보다 든든해지고 있다.

일군들은 농업부문에서 큰물로부터 토지 및 농작물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 있다. 이들은 배수양수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앞세우는 동시에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토지와 농작물보호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확고한 립장에서 큰물피해막이를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가물피해를 막으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물길가시기를 해제끼는데 이어 밭고랑들을 깊숙이 째고 포전둘레의 도랑치기를 하여 큰비가 와도 물을 강으로 쭉쭉 뽑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래일이면 늦는다는 관점에서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보호대책도 미리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신계군 백곡농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하천정리로 얻은 리득

◇ 고풍군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고풍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면천에 대한 하천정리공사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전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면천이 손색이 없게 정리됨으로써 6정보에 달하는 새땅이 얻어진것은 물론 읍협동농장의 10여정보의 농경지가 큰물피해를 받지 않게 되였다. 실로 큰 리득이 아닐수 없다.

이 하천정리는 지난 시기 공사량이 방대하여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었다. 총잡아도 제방을 높이는데 드는 막돌은 수천m³, 뒤채움에 필요한 흙석만 해도 수만m³에 달하였다. 게다가 우불구불한 물길을 곧추 펴면서 제방을 쌓아야 할 개소는 10여개나 되였던것이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진 지난해말 군에서는 하천정리사업의 1단계 제방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한마음한뜻이 되여 달라붙으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는 확신이 억세게 뿌리내렸다.

지난 6월 2단계로 진행된 하천바닥파기 및 제방뒤채움공사는 자강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나날이였고 군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련속과정이였다.

군에서는 최단기일안에 이 공사를 결속하기 위해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1단계에 비해 물동량운반이 많은 2단계 공사가 더 어려운것만큼 군일군들은 불도젤과 삽차,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를 총동원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하천바닥을 파는 동시에 제방뒤채움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큰물피해를 막도록 하였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과 가두인민반원들은 1단계공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며 맡은 과제를 그날로 수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여기였다. 날이 감에 따라 공격속도는 비상히 빨라졌고 대중의 투쟁기세는 더더욱 높아졌다. 그에 맞게 일군들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대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매일 1.2배의 실적을 기록하며 공격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었다.

군에서 각종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게 하는 사업을 적극 따라세운것은 잘한 일이다.

물동량운반이 곧 실적이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륜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알아보고 즉시 대책해나갔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수리정비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 흙석운반에 지장이 없게 하여 활화산처럼 타오른 대중의 투쟁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결과 군에서는 단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종전에는 엄두조차 못내던 일감을 해제끼고 큰물로부터 많은 농경지를 보호하고 새땅예비를 찾아 그 덕을 볼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는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강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바닥을 파내고 우불구불한 물길은 곧게 펴며 제방을 견고하게 쌓아 큰물피해를 막을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오철훈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덕천시 운흥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덕천시 운흥협동농장에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짧은 기간에 수km의 하천제방공사와 10여리구간의 도랑석축공사, 수십리구간의 배수로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그리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의 류실을 막고 농작물을 보호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농경지가 사방 높은 산으로 둘러막혀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이곳 일군들은 장마철피해막이의 중심을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물이 쭉쭉 빠지도록 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었다. 특히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물이 넘어나거나 흙이 무너져내리지 않게 하천제방을 높이 쌓으면서 제방과 도랑에 석축공사를 진행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두녀맹원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장마철전으로 맡은 공사를 와닥닥 해제낄 불같은 마음을 안고 시안의 당원들, 근로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제방을 높이 쌓아나갔다. 돌운반과 장석공사를 동시에 내밀면서 시작부터 공사속도를 높이였다. 하나의 돌을 쌓아도 그 어떤 큰물에도 견딜수 있게 공사를 질적으로 해나가면서 애국의 마음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1만여m³의 돌과 흙을 나르고 제방쌓기와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하천정리를 훌륭히 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그 기세로 배수로정리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영농작업이 긴장한데 맞게 로력조직을 더욱 짜고들고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데 힘을 넣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켰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당원들이 앞장에 섰다. 그들은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돌운반과 배수로치기에 앞장섰다.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도 적극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큰비가 내려도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배수로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마철농작물비배관리에 더욱 힘을 넣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성일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한번의 후치질을 해도

사동구역 덕동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강냉이밭후치질이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농장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있는 제5작업반의 강냉이포전을 돌아보던 사동구역 덕동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전호철동무는 어느 한 분조의 포전머리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후치날을 깊이 대여 밭고랑의 끝부분까지 시원히 터쳐주고야 다음이랑으로 넘어가는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가 미덥게 안겨왔던것이다.

그 한순간의 작업모습을 통해서도 그 분조가 맡은 강냉이포전의 후치질이 얼마나 질적으로 되였겠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이것은 그대로 이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모든 농장원들에게 장마철피해막이에서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시켰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강냉이는 물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지만 습기에 견디는 힘은 약하다. 자료에 의하면 강냉이가 습해를 심하게 받으면 정보당 소출이 2t이상 감소된다고 한다. 결국 습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이처럼 큰 알곡예비가 있는셈이다.

후치질을 질적으로 해주어 고랑으로 물이 쭉쭉 빠지게 하면 습해에 의한 뿌리썩음병, 무늬마름병도 결정적으로 막을수 있다.

그러고보면 후치질을 깊이 그리고 끝부분까지 잘해주는것은 올해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는 영농작업인것이다.

그날 총화모임에서는 이 분조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가 높이 평가되였다. 그리고 이들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모두가 한번의 후치질을 하여도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다.

다음날부터 농장에서는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는데 더 큰 힘을 넣었다.

우선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랑깊이를 삽날깊이이상 되게 해주도록 하였다. 이때 땅에 드러난 강냉이공중뿌리가 나오는 마디까지 흙에 묻히도록 북을 높이 주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래야 뿌리가 많이 내리면서 장마철비바람피해도 막을수 있었다.

또한 후치질을 포전끝까지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야 물이 고이지 않고 쭉쭉 빠질수 있기때문이였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김없이 진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농장일군들은 후치질이 끝난 작업반들에서도 포전끝까지 후치날을 대지 못한 곳이 없는가를 다시 확인해보고 잘못한 곳은 삽으로 터쳐놓아 물길과 정확히 이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밭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고 쭉쭉 빠질수 있게 되였다.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한치의 땅도 스치지 않고 후치질을 질적으로 잘해준 농장의 포전들에서는 지금 강냉이잎들이 풍요한 가을을 부르며 싱싱히 자라고있다.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풍작혼을 부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진진 일솜씨는 풍요한 가을을 약속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7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남부지역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들의 영향을 받을것이 예견된다.

그러므로 북부내륙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나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적을것이 예견된다. 순평균기온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높겠으며 북부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현상도 있을것이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현재 가물피해를 받은 포전들에서 생육을 빨리 추켜세우며 앞으로 장마를 예견하여 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가물로 억제된 논벼의 생육을 추켜세우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모를 낸 후에 논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여 땅이 굳어진 논들에서는 굳어진 겉층흙을 까주어 심판현상에 의한 토양물기날기를 극력 줄이고 벼포기밑부분흙을 헤쳐주어 아지치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생육후반기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한 경우 김이 많이 발생하므로 김잡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정상논에서 생육후반기비배관리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조건과 생육상태, 품종별특성에 맞게 이삭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이삭비료를 적기에 주어야 한다. 생육후반기에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을 보충해주어 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피해를 막아야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뿌리썩는 현상과 병발생을 막고 이삭아지비률을 높여야 한다.

장마철물빼기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물고를 모두 막아놓았다가 비가 멎은 후에 점차적으로 열어놓아 비물이 아래논들에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침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가물과 큰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현재 가물피해를 받은 강냉이의 생육을 빨리 추켜세워야 한다. 가물피해로 강냉이포전들에서 충하가 심하므로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생육이 약한 포기들을 위주로 개꼬리뽑기를 잘하여 충하를 줄이면서 개꼬리와 이삭수염나오는 시기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강냉이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잎덧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가물이 심한 조건에서 강냉이밭에 비료를 주면 흡수률이 떨어지고 가물피해를 더 심하게 받을수 있으므로 물기가 보장되는 차제로 빨리 이삭비료주기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예견되는 올해 장마철기상특성으로부터 강수량의 지역적차이가 심할것으로 보아지므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물주기대책을 계속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뒤그루강냉이밭에서 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빨리 끝내며 김매기와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가물피해를 받은 콩의 생육을 빨리 회복시키고 가물피해와 장마철습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콩밭에서 장마철습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뒤그루콩밭비배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평지대에서 앞그루감자수확을 빨리 끝내고 뒤그루감자종자싹퇴우기를 잘하며 고지대에서 역병피해를 막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시) 7월의 하늘가에

리 창 식

그리움이 사무치는 7월
저 만리창공에 새기여지는
《화성-14》의 비행운
아, 보십니까 수령님

정녕 들으십니까 장군님
행성을 뒤흔드는 장쾌한 뢰성
우리 원수님 안아오신
민족의 대경사입니다

위대한 력사의 날
대승전의 소식을 아뢰이고싶어
금수산의 하늘을 향해 목메여 부르는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가슴벅찬 이 순간
눈물겹게 어려옵니다
피로써 열어주신
강국의 초행길 그 굽이굽이가

천신만고로 헤쳐가신
선군천만리 높고 험한 령과 령들이

전쟁의 재더미를 가신 땅에
락원의 터전을 다지던 그 나날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가야 할 행진의 길을 앞에 두고
우리 수령님 잠 못 드시던
마음저린 그밤들이여

한평생 반미대결전의 최전방에 계시며
눈비바람에 젖고
진한 땀에 젖어
늘 마를새 없던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이여

강국의 미래를 위해 불태우신
위인들의 한평생을 심장속에 안으시고
깊은 한밤 이른새벽

화선의 먼길을 이어가신 원수님
그이의 남모르는 고생길이
그리움의 하늘가에
7월의 승리를 안아왔으니

눈물속에 아뢰입니다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아들딸들이
온 세상이 우러르는 강국의 인민이 되였다고
세계의 면전에서 미제의 숨통을 짓누르고
영웅조선이 이 행성우에 우뚝 솟았다고

오, 우리 원수님
그리움의 하늘가에 장쾌하게 터쳐올리신
《화성-14》의 자랑찬 뢰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드리는
최대의 경의여라
무궁한 영광이어라

(시) 승리! 대승리!

유 련 희

쩌렁이—
온몸에 줄달음치는 승리자의 희열을 안고
내 바라보노라
가없이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경축의 불보라인양 아름답게 새겨진
대륙간탄도로케트의 하얀 비행운을

저 푸른 하늘은
거대한 승리의 기록장
저 하얀 비행운은
빈말을 모르는 이 조선이
한다면 하고야마는 이 나라가
세계앞에 새긴 글발—

승리! 대승리!
첫 《화성》의 눈부신 불줄기로
승리의 계지를 눈물겹게 새기던
후더운 추억이 가슴을 흔든다

약동하는 조국의 불굴의 기상인양
눈부신 섬광으로
행성을 흔들던 첫 수소탄
련이어 날아오른 《화성》과 《북극성》들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하던
력사의 그 순간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아, 위대한 승리의 거봉들을
척척 딛고 건느며
사랑하는 내 조국의 평화를 지켜
무적의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은
끝없이 날아오르려니

평화롭게 날아예는 비둘기떼처럼
하이얀 비행운을 아름답게 새겨안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여
더 높이 새기라 우리의 승리를
조선이 어떻게
강국의 상상봉에로 솟구치는가를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령장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따라
핵도, 로케트도 자기 손에 틀어쥔
이 나라 인민이 세계앞에 새기는 승리의 글발

아 아, 참으로 눈부신
진정으로 가슴뜨거운 글발
너의 푸른 가슴 더 활짝 펼치고
온 세상에 보란듯이 새기여가라 펼치여가라
오, 승리! 대승리!

(시) 나는 위대한 공화국의 공민이다!

방 명 혁

폭풍처럼
섬광처럼
《화성-14》의 성공소식이
온 나라에 굽이치는 이 순간
가슴터쳐 웨치고싶구나
아, 나는 위대한 공화국의 공민이다!

가슴후련하구나
미국땅을 들부실 《화성》이 날으니
그것도 미국의 《독립절》에
호전광들의 입이 쩍 벌어질
통쾌한 《선물》을 보냈으니

얼마나 그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우리 조국은
철부지 내 아들조차 어벌이 자라
미국땅을 통채로 날려보내는
《화성》로케트병이 되겠단다
작은 손을 펼치고
한뼘 두뼘 미국까지의 거리를 잰다

어찌 아니 그러랴
태평양도 결코 막지 못할
주체탄들의 불길이 용용히 솟구쳐오르매
우리의 아이들은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강국의 당당한 후손들이매

위대한 공화국의 긍지높은 공민이라는
그것으로 하여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라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위도와 경도를 넘어
미국까지의 거리를
로케트의 비행거리로 재여보는 나라가
그런 강대한 조국에서 사는 인민이…

정녕 고마워라 고마워
끝없는 이 긍지를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그이 계시여
내 조국은 이 행성우에서
제일강국으로 길이길이 빛을 뿌리나니
그 품에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
아, 나는 위대한 공화국의 공민이다!

(시) 지구는 영원히 아름답다

신 문 경

솟구치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에 눈을 실어
나는 지금 이 지구를 내려다본다
우주의 푸른 행성
인류의 집을

제국주의의 전횡과 살륙의 황색먼지로
어지러워져가던 지구여
푸른 눈을 크게 뜨라
그리고 바라보라
우리 《화성-14》의 장한 솟구침을

부정의를 재판할 곳 더는 없고
짓밟히는 정의를 지켜줄 힘 없어
눈물과 피에 젖던 행성아
들었느냐
진리의 자전축을 다시 세운
주체조선의 힘 너의 지심을 울리는 소리

너의 자랑이며 희망이여라
자주의 힘을 다져온 선군조선!
인류가 생겨 본적 없는
가장 가혹하고 기나긴 봉쇄속에서도
조국과 세계의 래일을 지켜
이 행성의 중심에 빛을 뿌리는 나라!

솟구치는 강대한 조선의 힘앞에
미제는 악몽속에 깨닫게 되리
폭제와 침략을 일삼는 한
이 행성에 남아있을 자리 더는 없음을

이 세상에 억압과 강권이 있는 한
그것이 우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노리는 한
순간도 멈출수 없고 더더욱 가속될
자위적핵무력강화의 궤도에서
조선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니

오, 우주의 푸른 구슬
우리 지구우에서
수십억의 맑은 눈이 지금 이 시각
내 조국의 창공에서 먼저 열리는
아름다운 이 행성의 하늘을 바라보나니

그렇다
민족의 운명을 지켜선 선군조선
지구의 운명을 책임진 핵보유국
우리의 《화성》들이 있고
우리 공화국이 있어
인류의 보금자리—지구는 영원히
아름다운 행성으로 빛을 뿌리리

(시) 미국에 선언한다!

리 성 철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시험발사의 대성공!
이 력사적사변으로
피로 얼룩진 저 아메리카의 심장부에
사정없이 쏟아질 불벼락— 불벼락—

통쾌하여라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미제의 썩은 몸뚱이에
조선의 무쇠주먹이 안기는
징벌의 드세찬 이 강타

마지막비명소리 내지르는
미제의 정수리에
속시원히 쿡— 내려찍는
정의의 핵보검

아, 세계의 면전에서
《초대국》의 그 마지막허울마저
갈기갈기 찢겨져 넝마로 뒹굴거니

대륙간탄도로케트의 발사성공은
악의 제국에 내리는
선군조선의 엄숙한 선언이다

미제—너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우리
이제 그 허리띠는
비놈들의 멱줄을 결딴내는
교수대의 올가미가 되려니
이 세상 악의 근원을
오, 이 행성에서 영원히 끝장내리라!

(시) 7월의 개선영웅들

김 춘 길

7월의 영웅들이 평양으로 개선한다
얼싸안아주자
목마를 태워주자
우리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을 성공시킨
내 조국의 장한 국방과학전사들

꽃바다를 펼치고
춤바다를 펼친다한들
그대들의 값비싼 위훈 어이 다 노래하랴
강대한 조선을
영광만리에 떨친 개선용사들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나날
전선길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께
힘이 되고 의지가 된
그대들이 아니였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에 나서신
우리 원수님과
반미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혈연의 뜻과 정 함께 나눈
그이의 제일전우 제일동지들

축하를 받으시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승리의 뢰성으로 보답한
신념의 강자들이여
의지의 불사신들이여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념원을 풀어드리고
태양의 성지가 반겨맞는
평양으로 들어서는 그대들의 발구름소리
만리마시대의 영웅찬가로 울리나니

전승의 축포 터져오른 7월의 하늘가에
력사의 장거를 아로새긴 용사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격전장에 울리던 그 부름 높이
보무당당히 들어선다
영웅조선의 수도 평양으로 개선한다

(시) 불패의 강국 만세!

박 정 철

아득히 솟구쳐오른 그 정점은
지구상 온갖 원쑤들이
일시에 두무릎 꿇게 하는
힘과 존엄의 최절정

내리꽂히는 바로 그 순간
대공에 번뜩이는 불번개가
눈부시게 비쳐주었다
침략의 불구름 영영 가시여진
삼천리 우리 강토

강대하여라
위대하여라
오, 《화성-14》!
대륙을 날아넘는 무적의 불줄기로
최후승리의 대문을 열어제낀 조선아!

반만년의 대경사
백두대산줄기가 움씰움씰 춤을 춘다
동서해가 끓는다 끓어번진다
아름다운 대동강 출렁이는 물결우에
우리 행복의 무궁세월이 두둥실 실렸구나
이 땅에 태동하는 만복의 환희로다

락원의 거리거리들이
리상의 하늘가에 아득히도 솟았구나
산원의 창가에
태어나는 새 생명의 고고성
좋구나, 강국의 세월
축복받은 우리의 미래여

더 밝고 더 아름다운 이 나라의 새날을 불러
간밤도 과학지구는 밤을 잊었다
주체철용해장과 지하막장 탄벽앞에서
생산도표들은 우쩍우쩍 뛰어오른다
환희와 감격에 달아오른 심장들이
애국의 불길 더 활활 지펴간다

더 높이—
더 빨리—
누구나 부르짖는다
어디서나 웨친다
만리마대진군의 초소와 전구들은
전진과 약동의 불도가니
크나큰 긍지와 자부로 하여
또다시 백배해진 조선의 힘이다

그렇다, 천하무적 핵강국은 이미
세상 끝까지 세월 끝까지
강대한 힘을 내뻗쳤나니
더 높이 솟구치라
최강의 힘을 지닌 조선사람의 자존심이여
더 세차게 굽이쳐흐르라
영원한 백전백승의 해와 달이여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장군
위대한 그 품속에 흐르고흐를
무궁강대한 조선의 천년이여 만년이여
그 하루하루가
그 한해한해가 터치는 환호성
삼천리를 진동한다 행성을 뒤흔든다
불패의 강국 만세!
태양조선 만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과일군의 첫물복숭아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에게 공급

과일군에서 생산된 올해 첫물복숭아를 실은 과일수송대가 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과일대풍을 안아올 열의안고 떨쳐나선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심한 가물이 계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일나무를 정성껏 가꾸어왔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긴 이들은 질좋은 거름을 충분히 내고 과일나무들의 생육조건을 따져가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첫 수확거부터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다.

군에서는 수백t의 잘 익은 복숭아를 알알이 골라 자동차들에 가득 실어 평양으로 떠나보내였다.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싣고 수백리길을 달려온 첫 과일수송대를 시민들이 손저어 반기며 맞이하였다.

줄지어 달리는 과일수송차들을 바라보는 수도시민들의 가슴가슴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젖어들었다.

대동강기슭의 분수주차장에 도착한 수송대는 평양시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시내 상업봉사망들과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 등으로 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0일 전승혁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장춘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선교구역녀맹위원장 리예란, 대성구역 룡흥1동초급녀맹위원장 류숙영, 동성구역 은하동 녀맹원 김경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쳐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이며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내린 위대한 승리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이 경사에는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터전을 다지시고 병진의 기치높이 만난시련을 과감히 뚫고 헤치시며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온 세계를 진감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서시여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위대한 헌신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고 주체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온 슬기롭고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뼈속깊이 조아박고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영원히 한길을 가는 참된 녀성혁명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단번성공시킨 국방과학전사들의 눈부신 성과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에서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동맹원들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전진가를 기세차게 부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필 영웅

오랜 세월 평양은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바래웠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체육인들, 온 나라를 들끓게 한 혁신자들, 영웅적위훈을 창조한 인민군병사들…

그러나 지난 7일처럼 그토록 활화산같이 끓는 가슴으로 수십만 평양시민들이 환영의 꽃물결을 펼친적은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존엄높은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고 주체조선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운 국방과학전사들이 평양에 오지 않았는가.

목마에, 금수레에 태워 한사람한사람 하늘높이 추어올리고싶은 그들을 인민들은 용암같은 심장으로 얼싸안았다.

60여년전 7.27전승을 이룩하고 빛난 훈장 가슴과에 번쩍이며 고향으로 돌아온 전선용사들을 맞이하던 그때처럼 온 평양시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저도모르게 때없이 솟구치는 새 힘을 느낀다. 과묵하던 사람들도 웅변가가 되고 철부지들조차도 미국에 보내줄 코고작은 《선물보따리》를 만들 꿈들을 꾼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이 일으킨 파문은 온 세계를 주체탄충격으로 끓게 하였다.

모두가 말한다.

미국의 숨통을 조일 열쇠가 생겼으니 언제 열쇠를 꽂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제재가 조선의 민족사적인 쾌승을 안아왔다고!

어느덧 인민은 국방과학전사들의 이름을 영웅으로 통칭하고있다.

바로 그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앞에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앞에 가장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선 화선전투원들의 모습이 실린 지난 7월 8일부 당보를 볼수록 마음이 젖어든다.

주체무기개발완성을 위해 열혈의 심장을 아낌없이 다 바쳐온 결사전의 한치한치에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신념의 글발을 기발처럼 날리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을 위해 그들이 이어간 당중앙결사옹위의 길을 마음속으로 함께 걸어보느라니 위대한 태양의 미소가 우렷이 안겨온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결사대원들의 선두에서 화선지휘관이 되시여 세계전쟁사에 다시 없을 대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원수님의 그 희생적인 헌신의 자욱자욱이 가슴저리게 밟혀온다.

돌이켜보면 이 한해에만도 우리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민과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위해 마련해주신 값비싼 승리는 그 얼마이던가.

터져오르는 축포속에 만세를 부르고 기쁨의 춤바다를 펼친 인민은 다는 알수 없었다. 그 승리 하나하나에 얼마나 크나큰 우리 원수님의 고생과 헌신이 실려있는지…

그러나 우리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을 세계우에 우뚝 올려세운 국방과학전사들만은 그이의 심혈과 로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두자루의 권총을 빌 천삼아 선군의 길에 나서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피어린 결전을 벌린 조선혁명군 대원들처럼.

하기에 한평생 군력강화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승전의 보고를 삼가 올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국방과학전사들은 아마도 이렇게 심장의 말을 터쳤으리라.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오늘의 민족사적승리는 우리 원수님의 천신만고와 맞바꾼것입니다!)

진정 총포성없는 또 한차례의 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세대를 전승세대, 영웅세대로 존엄떨치게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이 땅의 영웅메달을 다 합쳐드린들 그 위대한 업적을 다 담을수 있겠는가.

누리를 진감하는 천만군민의 목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우리 원수님은 영웅중의 영웅이십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로씨야에 가는 체육성대표단 출발

김일국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성대표단이 로씨야에서 진행되는 제6차 체육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손광호 체육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귀국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싸꼬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1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와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조선은 절대로 빈말을 모르며 조선은 한다면 한다.

선군조선은 이 행성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피바다우에 솟아오른 살인국가, 침략국가의 《독립절》에 자주와 정의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의 장쾌한 뢰성을 울리였다.

적들자신이 절망속에 토설하였듯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이전에 한번도 본적이 없는 미싸일》이였고 그 개발의 눈부신 성공은 《반갑지 않은 충격》이였으며 그 우수한 기술적제원은 그야말로 《예상을 뛰여넘는것》이였다. 《최대의 압박》이니 뭐니 하며 기고만장해 날뛰던 미국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단번에 통쾌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는 억척의 담보를 더욱 굳건히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이번 사변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빠른 속도로 강화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이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속에서도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한 천만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우주에로 치솟고있다.

지금 외신들은 우리가 단거리로부터 준중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탄도미싸일들을 다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을 억제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조선전쟁이후 60여년간 미국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해온 조선의 립장에서 볼때 이것은 말그대로 숙원을 이룬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특히 서방의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세계 6번째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지형에 중대변수가 생겼다고 법석대고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는데 대하여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전문가들까지도 《화성－14》형이 결코 남의것을 복제하거나 조합한것이 아니라 북이 《자체로 개발한 진품》이라고 하면서 특히 재진입기술과 보조발동기들의 결합기술 및 자세제어능력은 세계적수준이며 놀랍게도 중량핵탄두들까지 탑재할수 있어 앞으로의 추가개발토대도 탄탄하다고 평하였다. 초기분석결과만 놓고보아도 《화성－14》형이 미국과 로씨야, 중국 등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싸일수준을 넘어서는 기술적진보를 이루었으며 그 사정권에 워싱톤과 뉴욕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요컨대 조선은 이미 준비를 다 끝냈다는것이다.

몇해전 한 외신은 우리가 머지않아 미국본토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의 개발을 완료할것이라고 예언하였었다. 하지만 적들은 그것을 고집스럽게 부인하는 한편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부분품들과 기술, 인적교류를 차단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늘여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며 우리에게 가장 잔악한 수법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비극은 원쑤들이 선군조선의 백절불굴의 정신력, 자력자강의 힘을 너무나도 몰랐다는데 있다. 이제 와서 저들을 몸서리치게 하는 《악몽의 씨나리오》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자 미국은 하는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국방성은 북이 발사한 미싸일은 재진입체가 있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NN방송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우리가 발사한것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는것을 다름아닌 미정부관리들이 확인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한편 북이 실지 대륙간탄도미싸일능력을 보유하였는가를 《정밀분석중》이라느니, 《리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싸일급이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모지름쓰던 괴뢰들은 미국상전들의 주장으로 째째 망신만 당하였다.

강자가 호령하면 섬겨바치고 위협하면 물러서다 못해 통째로 먹히우는 현실에서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담보는 오직 하나 자체의 강력한 힘에 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 문명에 복무하는 정의의 보검을 틀어쥔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이 휘고흔들던 핵무기의 부정의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다.

미국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가하는 공격방식은 유엔을 통한 제재, 독자적인 제재, 군사적공갈, 무력침공의 순서로 되여왔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압살공세는 그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공격카드를 뽑아들기 힘들게 되였다. 이미 내외여론들은 우리가 미본토까지 타격할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는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찢겨지나가고 특히 남조선미국《동맹》이 흔들리게 될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지금 미국의 처지가 그렇게 되여가고있다.

우리의 급속한 핵공격능력의 강화로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사실상 무맥해진 상태에서 절망감은 더욱 커지고있다. 오죽했으면 적들내부에서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선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겠는가.

가소롭기 그지없는것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에 기겁한 남조선당국의 추태이다. 황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전체회의라는것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련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괴뢰외교부와 통일부의 대결광들이 줄줄이 나서서 《유엔결의에 대한 정면위반》이라느니, 《조치협의》니 하는 악담을 줴치며 불에 덴 소처럼 날뛰고있다. 특히 괴뢰군부깡패들은 미국의 승인밑에 련합탄도미싸일사격훈련이라는것을 벌리며 군사적객기를 부리던 끝에 나중에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무엄하게 걸고들며 《도발》이니, 《파멸》이니 하는 극악한 폭언들을 내뱉았다. 이것이야말로 동족대결에 미쳐 리성을 잃은자들의 지랄발광, 민족의 힘과 존엄이 무엇이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모르는 쓸개빠진자들의 무지무도한 망동이다. 괴뢰들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도 제머리우에 언제 핵불소나기가 쏟아질지 몰라 정신없이 허덕이고있는 때에 한갖 주구에 불과한자들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짜불어대고있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것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방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계속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뛴다면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온 행성을 뒤흔드는 미제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은 어제도 승리하였고 오늘도 승리하고있으며 머지않아 최후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릴것이다.

허 영 민

수치스러운 패배에 분칠하는 광대극

요즘 남조선에서 괴뢰보수패당의 집권시기에나 흔히 볼수 있던 반공화국도발소동들이 뻔질나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괴뢰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벌어진 그 무슨 《제2연평해전 15주년기념식》이라는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놀음에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물론 어야당것들까지 모다들어 저저마다 개구리합창하듯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해괴한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이 그 누구에 대한 《복수》를 떠들어대면서 해마다 년례행사처럼 요란스럽게 벌려놓고있는 《제2연평해전기념식》놀음은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만신창이 된 저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가리우고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며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부추기기 위한 범죄적망동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괴뢰호전광들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물제잡이에 나선 어민들까지 인간방패로 내세워 우리에 대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에 나섰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릴 대신 괴뢰패당은 흑백을 전도하여 우리에게 《도발》의 감투를 씌우기 위한 비렬한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이 사건을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왔다.

특히 극악한 대결미치광이인 리명박역도는 처량하고 쓸쓸한 장송곡만 울리던 《추모식》을 죽음의 공포속에 떨고있는 괴뢰군사병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것들을 북침전쟁에로 내몰기 위한 《승전식》으로 둔갑시킬 심산밑에 《제2연평해전기념식》이라는것을 고안해냈다. 이때부터 괴뢰패당의 《제2연평해전기념식》놀음은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모해하면서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침전쟁도발소동을 합리화하는 계기로 되어왔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표방하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오히려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날뛰는 보수패당을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다.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제2연평해전 15주년기념식》광대극을 벌려놓은것은 사실상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뛴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전철을 밟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지금 북남대결을 고착시키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제2연평해전 15주년기념식》에 앞서 별도로 《추모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의 도발》이니, 《미싸일위협》이니 하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정부〉가 대화만 강조하다 또 다른 우를 범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훈시질을 해댔다. 이것이 남조선의 현 당국으로 하여금 박근혜《정권》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부추기면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영영 가로막아보려는 흉심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괴뢰보수패당의 장단에 놀아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압살할 범죄적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북침핵위협소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도발》이니 뭐니 하고 마구 시비질하며 반공화국제재압박에 미쳐날뛰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제2연평해전 15주년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은것은 이자들이 괴뢰보수패당의 본을 따서 괴뢰군에 동족대결기운을 고취하고 살벌한 전쟁광기를 불어넣으면서 군사적도발의 불씨를 살리려 한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심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이라면 상대를 적대시하는 이따위 대결소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그것이 없이 아무리 《대화》타령을 늘어놓아야 통할수 없다. 《제2연평해전 15주년기념식》놀음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뀐 후에도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의지에 도전하는 엄간망동이것을 그만두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을 침범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 어느때이건 15년전 서해의 검푸른 바다물속에 수장된 도발자들과 꼭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파멸을 부르는 무분별한 도발망동

괴뢰들이 미국에까지 건너가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며 호전적광기를 부리고있다.

얼마전 알라스카에서 진행된 미국주도의 공군훈련에 참가한 괴뢰호전광들은 《KF－16》전투폭격기편대를 비롯한 공군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핵심시설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노린 폭격기유도연습, 합동정밀직격탄투하연습, 공중급유연습 등을 미친듯이 벌려놓았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저들의 도발적흉계를 가리워보려고 이번 불장난소동에 그 무슨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씌웠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알라스카에서 진행된 연습이 미국주도의 대규모연습으로서 괴뢰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참가하여 우리에 대한 공중기습타격능력을 부단히 숙달, 완성하여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선군조선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에 혼이 나간 미국은 군사적도발소동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호전광들은 얼마전 《B－1B》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투하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린데 이어 《니미츠》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투입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였다.

최근에는 우리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피하며 장거리공중대지상미싸일을 군산미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이로 하여 언제 북침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괴뢰들이 미국에서 우리의 핵심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연습에 열을 올린것을 과연 스쳐지날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괴뢰호전광들의 이번 불장난소동은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터뜨리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로서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도발이며 민족의 운명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죄악이다.

가관은 비루먹은 승냥이꼴이 된 상전을 신주모시듯 하면서 멋없이 설쳐대는 괴뢰들의 경망스러운 추태이다.

괴뢰들은 이번 전쟁연습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합동타격절차를 집중점검했다.》느니, 《전투경험》을 얻었다느니 하면서 쑥대끝에 오른 민충이마냥 목을 빼들었다. 그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괴뢰들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의 신세가 과연 어떠한가.

하루가 다르게 그 위용을 힘차게 떨치고있는 주체적인 전략무기들의 위력앞에 미호전계층은 당황망조하여 련일 비명과 아우성만 터치고있다.

누리를 진감하며 울려퍼진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의 장쾌한 폭음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총체적인 파산을 선언하였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우롱할수 없으며 함부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현실이 이럴진대 남조선괴뢰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현실감각도 없이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듣고 따라가는 격으로 덮어놓고 외세의 발뒤꿈치에 졸졸 붙어다니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자들인가.

외세와의 공조와 동족대결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처럼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칠 야망을 추구하면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는 비극적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운명을 되풀이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동족의 정의로운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고맙게 여기고 찬양하지는 못할망정 《도발》이니 뭐니 하고 시비질하고있는것은 한치앞도 가려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추태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를 원하고 대화를 바란다면 외세의 침략전쟁책동에 추종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내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온 정 철

극악한 반역무리인 《자유한국당》을 쓸어버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남조선에서 친미보수정당이며 《유신》파쑈독재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지금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물론 가정주부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군중은 친미, 친일주구집단이며 극악한 동족대결로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민족반역의 무리인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할것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나고있다.

이 투쟁은 지어 보수의 아성이라는 경상도지역과 대구에까지 급속히 번져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초불집회, 기자회견, 규탄모임, 5행시창작발표, 《자유한국당》의원 매며잡는 놀이, 《자유한국당》마크가 새겨진 대형현수막을 찢어 쓰레기통에 처넣기, 손전화를 통한 《문자폭탄공격》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친미보수패당의 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각계층의 《자유한국당》해체투쟁은 남조선사회의 질곡이며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쑈독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자주와 정의, 민주주의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지극히 의로운 투쟁이다.

《자유한국당》은 만고역적이며 인간오작품인 박근혜년의 더러운 치마폭에 매달려 《유신》독재부활과 파쑈폭압,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민족앞에 온갖 죄악을 덧쌓아온 극악무도한 반역패당이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완전히 가로막았으며 북남관계를 사상 류례없는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반민족적인 범죄자들이 다름아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다.

지금도 이 패거리들은 동족을 《주적》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밀어넣게 될 미국의 《싸드》배치에 극성을 부리고있으며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매도하며 민심에 역행하고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 항거의 초불을 추켜든 인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면서 박근혜년의 역적질을 비호두둔하며 갖은 악행과 만동을 부리던 극우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첫째가는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아무리 골백번 《혁신》과 《쇄신》을 떠벌여대도 까마귀는 영원히 백로가 될수 없듯이 가증스러운 천하의 반역무리인 극우보수패당의 추악한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박근혜년과 함께 민심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유한국당》패거리와 같은 극악한 대결광신자, 패륜패덕의 무리들이 아직도 살아숨쉬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역적패당을 더이상 남겨둘수 없다는것이 분노한 민심의 절규이다.

동족대결과 파쑈독재, 친미사대가 체질화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잔당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통일은 물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도 실현될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치주스러운 사회악의 본거지이고 박근혜적폐1호인 《자유한국당》을 모조리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을 때만이 초불투쟁의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유한국당》해체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0일

평 양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와 《싸드》저지 광주행동이 3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공동성명》에 대한 립장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미국대통령과 남조선당국자가 회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북》적대시정책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하면서 북의 《도발중지》를 운운한데 대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과 위기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오래동안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취해왔기때문에 조성된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경제적제재와 군사적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이미 증명되였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에 관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계획을 철회하면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미국이 《싸드》배치문제를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남북대화문제에까지 간섭해나서고있다고 단체들은 폭로규탄하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자료들 새로 공개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5일 태평양전쟁시기 일본군의 성노예로 중국 절강성 진화시에 끌려갔던 조선녀성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문서가 새로 공개되였다.

194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조선에서 끌려온 100여명에 달하는 20대, 30대 녀성들의 이름과 나이, 출생지가 기록되어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직업이 밝혀져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소는 일본군 《위안소》들의 주소와 같았다.

문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이 도시에만도 10개의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세운 사실을 립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여 력사를 외곡하는 일본우익반동들의 주장을 반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5일 미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동영상자료가 공개되였다.

1944년 9월에 촬영된 18초짜리 동영상에는 중국남부를 강점한 일제침략군부대에 성노예로 끌려가있던 조선녀성들의 모습이 담겨져있으며 이미 사진으로 공개되였던 성노예피해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사건관계자들에게 악형 선고

2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괴뢰대법원이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였다.

대법원은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리준일에게 《리적단체》를 조직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였다는 리유로 징역형을 비롯한 악형을 가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이날 다른 8명의 통합진보당사건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싸드》배치소동이 고발하는 상전과 주구의 죄악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우선 발사대 1기를 올해에 먼저 배치하고 다음해에 나머지 5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었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남조선에는 《싸드》발사대 2기가 이미 배치되였고 나머지 4기도 비밀리에 반입되여 미제침략군기지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과 박근혜패당이 합의고 뭐고 다 줴버리고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에 어떻게 하나 《싸드》배치를 되돌릴수 없는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신없이 서둘러댔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남조선 각계는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싸드》배치의 전과정을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이 급격히 고조되는 속에 당황한 미국은 《싸드》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협의》했다느니, 《〈싸드〉포대전체를 배치하는것이 남조선방어에 필수적》이라느니 하는 얼빠진 수작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망동을 정당화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싸드》반대기운을 어떻게 하나 눅잦히고 저들의 침략적기도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뻔뻔스러운 술책이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의 산물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싸드》는 미국이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이 일대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다.

남조선을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핵전쟁터로 만들려는것이 바로 《싸드》배치에 나선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심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괴뢰군사전문가들까지 《북의 미싸일들을 〈싸드〉로 막는다는것은 황당한노릇》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은 《미본토에 대한 타격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일뿐이라고 개탄하였다.

《싸드》배치소동이 어떤 참혹한 재난을 몰아오는가를 잘 알고있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싸드》배치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괴뢰보수패당을 부추겨 《대통령》선거전에 《싸드》배치를 완료할 심산밑에 《싸드》1개 포대분량인 6기의 발사대전부를 남조선에 황급히 끌어들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포악하고 날강도적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싸드》배치과정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의 《동맹》이란 허울뿐이고 남조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러니 남조선에서 반미감정과 《싸드》배치반대투쟁이 고조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싸드〉배치저지 전국행동》의 주최하에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민주로총, 청년민중의 꿈,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싸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시위행진을 벌린데 이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을 에워싸고 《포위집회》를 단행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초불을 들어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웨치면서 《싸드》와 돈뭉치를 입에 문 트럼프의 낯짝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어버리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한 이날의 집회에서는 《미국이 로골적으로 〈싸드〉배치를 강요하고있다.》, 《이것이 〈동맹〉이냐, 〈싸드〉들고 나가라.》, 《종속적인 〈동맹〉은 폐기되여야 한다.》등의 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슨 《동맹》의 간판밑에 기어코 《싸드》를 배치하려고 악을 쓰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전횡을 끝장내고 평화와 생존권을 지켜내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이다.

그에 비해볼 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미국의 《싸드》배치강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박근혜역적패당은 얼마나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인가.

폭로된바와 같이 박근혜패당은 미국상전에게 재집권의 기회를 마련해줄것을 애걸하면서 그 대가로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확약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친미사대적이며 매국적인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적조치》니 뭐니 하고 고아대며 《싸드》배치를 구구 합리화해나섰다.

더우기 용납할수 없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박근혜역도의 탄핵으로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싸드》배치를 급속도로 다그치면서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외에 4기의 발사대를 추가로 몰래 반입한것이다. 그리고는 저들의 죄악이 폭로되는것이 두려워 《싸드》발사대추가반입사실을 철저히 은폐시켰다.

《싸드》배치소동이야말로 미국상전의 요구라면 간도 쓸개도 송두리째 섬겨바치며 잔명을 부지해온 친미보수패거리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저지를수 없는 매국반역적망동이다.

하지만 이 역적무리들은 지금 남조선땅을 미국의 핵전쟁마당으로 전락시킨 저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면서 민심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괴뢰보수패거리들이 《〈싸드〉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랄판》이라느니,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미국과의 《싸드》배치합의내막이 폭로된데 대해 반발해나서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로써 괴뢰보수패당은 미국의 철저한 앞잡이, 상전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서슴없이 짓밟는 매국역적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한번 명백히 드러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신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서도 미국의 침략적인 전횡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투쟁, 매국역적들의 더러운 명줄을 끊어버리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반보수투쟁을 조금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 영 국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가장 걸출한 수령, 절세의 위인

세인을 매혹시킨 특출한 위인상

흐르는 세월은 모든것을 싣어간다고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이 있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인류의 미래,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고결한 인품으로 세인을 매혹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모습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이 강산에 굽이치고있다.

로씨야와 이란, 도이췰란드, 벌가리아, 에티오피아, 영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결성되고 회고모임과 토론회,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 보급하고있으며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열심히 탐독하고있다.

위인에 대한 숭배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업적의 위대성과 위인상에 대한 탄복, 매혹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의 갈피마다에는 그이의 위대하고 숭고한 풍모를 전해주는 감명깊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순간에 매혹시키시는 고결한 인품과 포용력, 천리혜안의 예지, 세상만사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해박한 지식, 한없이 따뜻한 인정미와 능란한 용병술 등 모든 위인적풍모를 다 지니고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높은 덕망을 지니시고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을 만나주시고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도이췰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제 린저가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몸소 정원에까지 나오시여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기의 인생사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세계정치정세를 비롯하여 제기한 문제들에 명쾌한 대답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는 그날의 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흔히 하듯이 겸허하게 담화를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매우 침착하시고 쾌활하시고 친절하시였으며 꾸밈새가 없으시였다. 참으로 평범하시였으며 위엄을 보이시려는 기색도 전혀 없으시였고 롱담도 하시면서 소탈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눈이 나빠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영화를 보지 못하면 사는 재미가 있는가고 하시면서 눈치료를 받도록 친히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뿐만아니라 해마다 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특혜도 베풀어주시였으며 10여차례나 그를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된 그는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인홍보와 칭송의 글들을 련이어 써냈다. 그는 동료들과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김일성주석의 은혜는 대를 두고도 갚을수 없는것이기에 그이를 위해 한줄, 한글자라도 더 쓰다가 숨지는것이 나의 소원일뿐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뜻밖의 비보에 접하였을 때 자기의 생일 80돐을 맞으며 그이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금가락지를 소중히 감싸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심장 한 부분이 뚝 떨어지는것만 같다.

나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금가락지를 심장에 품고 세상을 하직하겠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외국의 벗들모두의 심정이였다.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던 나라의 정치인들도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넓은 도량과 위대한 천품에 감복되여 그이를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주체83(1994)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접견해주시였다. 카터가 자기의 개인보좌관에게 김일성주석께 완전히 매혹되였으며 그이를 만나뵙는 첫 순간부터 이분이시야말로 평화애호적인 분이시라는것을 느꼈다고, 그이는 지혜로우신분, 실무에 능하신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분이시라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한것도 그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매혹된 사람들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캄보쟈왕국 대왕이였던 노로돔 시하누크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형제로, 가까운 전우로 된 더없는 특전과 영광을 지니고 그이로부터 헤아릴수 없는 은혜를 받아안던 나날을 회고하면서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진보적인류의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세계 각국의 정치가들과 군사가들, 문화인들, 언론인들은 《세계정치사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동지는 인민과 함께 영생하신다》, 《태양은 영원히》, 《영원한 그리움》 등의 제목들을 단 도서와 회상실기, 홍모시, 글들에서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세계의 그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덕망을 지니시고 20세기의 갈피마다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아로새기신 전설적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과 정견, 신앙과 언어가 다른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로부터 이렇듯 열렬한 칭송을 받고계신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이 위대하고 그이께서 지니신 위인상이 특출하기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심에 떠받들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본사기자 손소연

— 비유법으로 깨우쳐주신 진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와 로작들은 간결하면서도 무게있고 통속적이면서도 심오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나날에 수많은 나라 수반들과 인사들의 질문에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으며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비추어 혁명과 건설의 진리를 깨우쳐주군 하시였다.

당건설은 복숭아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을 접견해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때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당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요청드리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우에 놓인 복숭아를 손에 드시고 당은 복숭아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해야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복숭아에 비유하면 살은 인민대중이고 씨는 당이며 씨속에 있는 알은 수령과 같다고 원리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아프리카의 망고처럼 핵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앞이 확 트인 대표단단장은 그이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주석동지, 저는 돌아가면 조선의 복숭아처럼 당을 건설하겠습니다.》

토끼에게는 차나 에스키모가 필요없다

어느해인가 짐바브웨의 무가베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의 방문을 축하하여 차린 만찬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당시)이 자기 나라의 베르사이유궁전보다 더 훌륭하다고 평가한 프랑스사회당 당수의 이야기며 우량종토끼를 군대에서 기르도록 조치를 취하신 이야기 등 여러가지 여담을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토끼는 풀만 있으면 기를수 있다고, 토끼에게 차나 빵, 에스키모는 필요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들을 단순한 여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에서 자체로 건설한 건물이 발전된 유럽나라들의 궁전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것이나 토끼에게 차나 에스키모가 필요없다고 하신 이야기들은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 인민에게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원리들을 깨우쳐준 귀중한 명언들이였던것이다.

다리없는 의자가 소용없듯이

주체70(1981)년 2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의 특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특사는 우리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군사일군들을 양성해주었으면 하는 청을 올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지휘관들을 훈련시켜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미 이룩한 민족적독립을 지키고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신들의 위업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정권은 무기로 보위하여야 한다고, 다리없는 의자가 소용없듯이 군대없는 정권은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비유법을 쓰시며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특사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그 나라 수반은 크게 감동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명언을 수첩에 적어두고 철리로 삼았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일성화온실참관식

기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김일성화온실참관식이 기네, 인도네시아에서 5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온실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김일성화들과 불멸의 꽃이 세계적인 화초박람회, 전시회들에서 받은 상장, 메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 날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온실들을 참관하였다.

기네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조선인민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 특히 기네의 새 사회건설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진보적인민들은 그이의 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은 태양의 꽃과 더불어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선은 이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 핵무기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미국은 머지않아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야말것이다.

인도네시아 쟈까르따 따만앙르렉화초원 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참관식을 통하여 김일성화에 깃든 사연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앞으로 태양의 꽃이 더욱 만발하게 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하였다.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세계정치의 원로

여러 나라 신문들 글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이란, 인디아신문들이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4일부는 《20세기의 걸출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수령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개척과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신 사상리론의 거장,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은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시고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였다.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 4일부는 《김일성, 자애로운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일성주석을 회고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주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해빛같은 미소를 짓군 하시였다.

이 남다른 풍모로 하여 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장구한 나날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모진 슬픔과 아픔을 묵묵히 새겨가시면서도 사람들앞에서 언제 한번 표정을 달리하신적이 없으시였다.

늘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사람들을 따뜻이 대해주시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것이 바로 김일성주석특유의 위인적향기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 6월 30일부는 《인민의 어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들로부터 자애로운 어버이로 불리우시였다.

김일성주석께 있어서 인민은 사랑하는 아들딸들이였다.

그 천만자식들을 위하여 주석께서는 쉬임없이 헌신하시였다.

그이의 영상을 그릴 때 특히 감명깊게 안겨오는것은 어린이들속에 계시던 모습이다.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우간다, 만마인사가 6월 29일과 7월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루가라마는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떨쳐올수 있었다, 주석께서 개척하시고 발전시켜오신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던 툰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는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고 열렬히 사랑하신 자애로운 인덕의 화신이시며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은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이딸리아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의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을 축하하여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전률시킨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한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담보이다.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는 미국의 정책이 선군조선에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완전히 확증되였다.

주체조선은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노력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5일 이슬람교혁명근위대 고위지휘관들과의 담화석상에서 나라의 미싸일계획을 계속 발전시킬데 대해 언명하였다.

지금 적들은 이란의 미싸일들을 매우 경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미싸일계획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이 최근 단거리지대지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최대사거리가 70㎞인 《나스르》단거리지대지미싸일은 신속전개할수 있는 고정밀무기체계이라고 한다.

5일 이 나라 군부가 밝혔다.

할트마긴 바뜨톨가 몽골 대통령으로 선거

몽골에서 할트마긴 바뜨톨가가 새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고 한다. 8일 이 나라 총선거위원회가 밝혔다.

민족의 단합을 호소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 정치국장이 5일 한 연설에서 팔레스티나통일정부를 구성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리익과 목표를 위한 명백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를 비롯하여 팔레스티나 전령토에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통일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마스는 그와 관련한 총선거에 참가할것이며 팔레스티나인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렬을 종식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태양에네르기리용사업 활발

세계적으로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3일 국제에네르기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여 7 000만-7 500만kW의 발전능력이 조성되였으며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50%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현재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한 전력생산량은 총 전력생산량의 24%를 차지하고있으며 2021년에 가서는 36%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인구의 날

1987년 7월 11일, 이날 세계인구는 50억명으로 되였다.

그로부터 2년후인 1989년 유엔인구기금 집행리사회는 7월 11일을 세계인구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였다. 다음해에 세계 90여개 나라가 이날을 처음으로 기념하였다.

50억명의 인구를 기록한 때로부터 30년이 흐른 오늘날 세계인구는 76억명에 이르렀다.

인구의 끊임없는 장성과 함께 인구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인구문제는 인구의 량적 및 질적장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식량문제, 자원문제, 실업문제, 빈곤문제, 환경문제, 고령화문제, 소년로동문제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변태적인 생활양식에 의한 인구장성률의 저하, 인구의 도시집중화, 소년로동 등을 비롯한 심각한 인구문제들이 제기된다.

실례로 일본은 현재 출생자수가 줄어들고있어 저출산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인구문제를 안고있다.

유엔인구기금은 해마다 세계인구의 날을 맞으며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제기하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있다.

올해의 주제는 《가족계획: 인간의 권리보장과 사회발전》이다.

가족계획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아이수와 출생간격, 출생시기에 대하여 부부들이 세우게 되는 계획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인구발전과 사회경제발전목표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을 가지고있다.

유엔인구기금은 모든 나라들에서 가족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를 리용하여 인구정책을 바로 실현해나가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가족계획을 바로세우고 리용하면 해당 나라들의 임산모와 갓난아이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다고 한다.

올해 세계인구의 날을 맞으며 우리 나라의 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소식》특간호를 발행하였다.

특간호는 세계인구의 날의 주제에 맞게 가족계획의 본질과 필요성을 각이한 소제목들을 달고 다양하게 보도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가족계획리용실태와 우리 나라와 유엔인구기금사이의 협조활동을 보여주는 글들을 실었다.

우리 나라는 인구문제해결을 위하여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사회적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미국

련이은 총기류범죄

• 미국의 아칸소주에서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1일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들이 주의 리틀록크시에 있는 야간유흥장에 뛰여들어 수십발의 총탄을 란사하여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의 AP통신은 1일까지의 6일동안에만도 시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면서 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한 총기류범죄가 약 10건 발생하였다고 전하였다. 아칸소주 지사는 2-3일에 한번씩 총기류범죄가 보도되고있다고 하면서 시에서 범죄행위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 미국에서 올해에 들어와 7월 4일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3만 1 35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7 78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 5 409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매일 평균 169건에 달하는 총기류범죄가 일어나 42명이 죽고있다고 한 사회단체가 폭로하였다.

이것이 바로 살인천국, 범죄의 왕국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인종주의범죄 성행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 흑인들과 유태인들을 비롯하여 소수민족들을 겨냥한 공격행위가 공식 등록된것만도 93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94건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3일 주 사법당국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하여 시위

더욱 격화되는 이란-미국관계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지난 6월 중순 미국회 상원에서 새로운 대이란제재법안이 통과되고 미국무장관이 이란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망발한것으로 하여 더욱 악화되고있다.

미국의 대이란제재소동은 최근년간 이 나라가 자체의 계획에 따라 미싸일개발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한 불만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이란은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 각이한 사거리를 가진 미싸일들과 특히 고체연료발동기를 리용한 국내산 신형미싸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계렬생산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란의 미싸일개발을 걸고드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으로 압박의 도수를 높였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이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2015년 7월에 채택된 핵합의에 따라 폐쇄하였던 우라니움농축시설들을 재가동시킬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회 상원에서 새로운 대이란제재법안이 통과되자 이란은 성명을 발표하여 그것이 이란핵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는 즉시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할데 대한 대응안을 작성하였다.

미국이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도 이란은 자체의 미싸일계획을 더욱 강경하게 추진시키고있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자국의 방위력강화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자그마한 양보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이란정부대변인은 국방부문의 미싸일개발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후원할 립장을 표명하면서 미국과 그 어떤 협상이나 타협이란 있을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미국무장관 틸러슨이 이란정권교체에 대한 망발을 로골적으로 늘어놓자 이란외무상은 미국은 이란정권교체가 아니라 저들의 정권유지에나 신경을 쓰라고 신랄히 야유조소하였다.

실지로 현 미행정부는 남의 정권을 두고 이렇다저렇다할 형편에 있지 못하다.

최악의 정권이라는 오명이 붙은것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로씨야내통의혹이 점점 확대되어 트럼프에 대한 탄핵위기까지 겹쳐들고 빠리협정탈퇴로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느라 기를 펼새가 없다. 며칠전에도 로스안젤스에서 트럼프탄핵을 요구하는 행진이 진행되였다. 《력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쓴 간판을 든 항의자들은 《트럼프를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현 미행정부는 국내에서 저들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위기해결의 출로를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캄파니아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미국과 이란사이의 대결의 도수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이란은 자국의 군사력을 자체의 힘에 의거한 위력한 전쟁억제수단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제재가 증대되고 내정간섭이 로골화된다고 하여도 미싸일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미국의 대이란제재압박과 그에 강경대응하는 이란의 움직임으로 보아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박예경

ㄱ-71108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